

교통지옥 부른 봉선동 배수지 '수상한 공사'

노후관 교체 더 급한데 455억원 투입 배수지 공사 강행 논란 광주시 내부서도 시급성 등 놓고 이견 속 신중 추진 지적도 광주 사용금지 광관 많고 누수율 높아...시민 건강 먼저 챙겼어야

모아증권 공사·도화엔지니어링 감리

광주시가 시민들의 반발 속에 진행중인 봉선동 배수지 공사(광주일보 2018년 10월 19일자 6면)와 관련해 시청 내부에서도 공사 시급성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제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노후한 상수도관 등으로 매년 100억원 넘는 수돗물이 땅속으로 버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목적으로 배수지 공사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것이다. 광주시의 수돗물 누수율은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고 서울보다는 5배 가량 높은 탓에 '물 낭비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노후 상수도관은 정부에서 1994년부터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상수도관으로 사용을 금지한 아연도(금) 광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민의 건강마저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0년까지 총사업비 455억3900만원을 들여 남구 봉선동 일대에서 '봉선배수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상시 봉선동 일대 용수 확보와 새로 조성되는 동구 용산지구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공사는 (주)모아종합건설, 감리는 (주)도화엔지니어링 등이 맡고 있다.

하지만 이미 동구 용산지구에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는 데다, 가뜩이나 부족한 상수도 관련 예산 여건속에 비상 상황까지 고려해 배수지 공사를 해야 하나에 대해서는 시청 내부에서도 의견이 맞서고 있다.

광주시의 한 공무원은 "노후한 상수도관

교체보다, 봉선동 등 광주도심 내 배수지 공사에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시청 내부에서도 시급성 등을 두고 의견이 맞서기도 했다"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예산도 상당 부분 배수지 공사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내 일부 간부 공무원 등이 교체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현 배수관공사 집중 방침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시청 내부에선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시급성 논란이 있는 배수지 공사 시점 등을 기본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반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가 배수관 정비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광주의 수돗물 누수율은 전국 대도시 중 최고라는 불명예를 기록중이다.

광주시의 연도별 누수량은 2013년 1942만t, 2014년 1831만t, 2015년 1753만t, 2016년 1758만t 등이다. 연평균 1800t이상의 수돗물이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이를 생산원가만 계산해도 지난 5년간 600억원대의 수돗물이 누수로 사라졌다.

광주시의 누수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5년 기준 광주의 누수율은 10.12%로 서울(2.40%)과는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부산(4.4%), 대전(4.6%), 대구(5.4%) 등과 비교해 봐도 2배 이상 높다.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누수율이다.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관 중 일부는 녹물 등 이물질이 발생하고, 물에 닿으면 내부가 빠르게 부식되는 아연도 광관이나 회주철도 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2012년



29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무등1차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봉선배수지 관로공사로 교통이 정체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기준으로 광주의 전체 상수도관 3733km 중 교체가 시급한 20년 이상된 노후관은 390km(10.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수장과 배수지 중간

지점에서 상수도가 파열될 경우 오랜 시간 동안 단수가 될 수 있지만, 배수지가 있으면 12시간 정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측 설명이다. 문제는 학교측이 사고 직후 학부모에게 거짓 안내를 했다는 점이다. 사회복무요원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인 폭행이 개입돼 아이가 다친 것인데 "아이 혼자서 활동하다 다쳤다"고 한 것이다. A군은 발달장애를 앓고 있어 말과 글로 의사표현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

학교 측은 한달여 지난 10월 9일 교육청에 사고 내용을 첫보고 했다. 사고 내용을 뒤늦게 안 교장이 학생 부상에 사회복무요원이 연루됐다는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했고, 다음날 학부모에게도 "자녀 부상에 사회복무요원이 개입됐다"며 사건 경위를 다시 안내했다. 교장은 학교 사고보험 처리

절제 과정에서 학생이 다친 것을 파악했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학교측 설명과 달리 조사·감사에서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양치 지도 과정에서 A군을 손과 발로 폭행했다는 학교 관계자 진술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장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지도 과정에서 뿌리치며 밀치다 다친 것이 '손과 발로 (적극적으로) 때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교육청 보고, 학부모에 대해 정확한 사고 경위 안내가 늦어진 것은 사건 당시 제가 출장 중이어서 늦게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kwangju.co.kr

축사 부수고 죽은 오리 수 부풀리고... 폭설·폭염 허위피해 20억대 보험사기

오리농장주 등 18명 적발

폭설과 폭염 등 자연재해 때 피해를 입은 것처럼 꾸며 수십억원의 재해보험금을 가로챈 오리 농장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니주경찰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28차례에 걸쳐 가축재해보험을 23억원을 허위로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오리 농장주 임도(5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속이나 입건된 사람 중에는 오리 농장주 말고도 축사를 부수고 시공해준 건축업자, 폐사 가축 수 조작성에 함께 가담한 오리계열 회사 임직원 등도 포함됐다.

조사결과 임씨 등 오리 농장주들은 폭설이 내릴 때 일부러 햇빛 가림막을 치우지 않고 눈이 수북이 쌓이게 해 축사를 고의로 무너뜨렸으며, 일부 축사는 기둥에 밧줄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트랙터를 이용해 부수기도 했다.

시공업자 김모(59)씨는 일감을 얻기 위해 축사를 부수 주고, 자신이 무너뜨린 축사를 다시 신축하거나 보수해 공사비를 챙겼다가 구속됐다.

시공업자이면서 오리를 키웠던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오리농장에서도 축사 부수기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여름철 폭염 기간에도 농장주들의 보험사기행각은 이어졌다.

농장주들은 계약을 맺은 새끼오리 및 사료 납품회사 임직원과 공모해 폭염 발생 시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폐사 오리를 부풀린 뒤 보험금을 추가로 타냈으며, 현장을 확인하러 온 보험 손해사정인에게는 '악취 때문에 오리 사체를 전부 묻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이들이 폐사했다고 부풀린 오리는 5만여 마리, 탄낸 보험금만 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살수차 지휘·조종 경찰 3명 백남기 유족에 6000만원 배상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당시 살수차를 지휘·조종한 경찰관으로부터 총 60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과 살수 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3명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 심리로 열린 조정 기일에서 백씨 유족 4명에게 1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손 불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유족들은 백씨가 숨지기 전인 2016년 3월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살수차 조종에 관여한 경찰들을 상대로 총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친모 폭행 의식불명 빠뜨려 20대 조현병 아들 구속

광주북부경찰은 29일 어머니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손속폭행)로 A(26)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에 광주시 북구 오지동 한 아파트 13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어머니 B(50)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씨는 인근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조현병을 앓고 있는 김씨는 어머니와 외출한 후 귀가하던 중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으며,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진술하지 않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정신병원으로 긴급 입원 시킨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

특수학교 사회복지요원이 장애학생 폭행 학교측 "혼자 놀다 다쳤다" 부모에 거짓말

시교육청 "손·발로 폭행" 진술 확보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사회복지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학교 측이 사고 경위를 허위로 부모에게 안내한 것으로 드러나 사건 축소, 은폐의혹마저 제기된다.

29일 광주장애인부모연대와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날 7일 오후 1시에 광

주 한 특수학교에서 5학년 A(16)군이 머리를 다쳤다. 해당 학생은 교사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져 머리를 2바늘 가량 꿰맸다고 한다.

이 학생은 당시 식사 후 사회복지요원의 도움을 받아 화장실에서 양치하던 중 세면대에 부착된 철제 비누 고정대에 머리를 부딪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사회복지요원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밀치고 다치게 됐다는 게 학교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